

제 170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및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강연자: 권혁욱 (權 赫旭) (니혼대학 경제학부 교수)

니혼대학 경제학부의 권혁욱 교수의 세미나가 5월 13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및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권혁욱 교수는 일본은 선진경제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나라이며, 이와 같은 사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에 떨게 한다고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우선 미국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과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90년대 이후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이유를 보기 위해 일본경제의 장기추세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일본경제의 민간부문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경제가 생산력에 기여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엔화의 약화 등으로 인해 TFP성장률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조업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90년대까지는 수출로 인해 일본경제를 성장시켰지만 2000년대 이후에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성 하락은 대부분 사업소 내의 생산성 감소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기업 규모내의 TFP성장률을 보면, TFP성장률의 하락이 대기업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본 경제의 생산성 저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래 일본은 노동, 생산, 자원배분의 일본의 특징적인 경제 시스템과 산업정책, 과당경쟁제한, 노동자해고규제, 호송선단방식의 금융규제와 같은 일본정부의 정책과 제도로 인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국내와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본래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대처해온 것이 일본경제의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권혁욱 교수는 설명하였다. 우선 일본경제의 실패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것이 일본 경제를 실패 원인 중 하나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R&D스톡의 증가율인데,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그 생산량도 감소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투자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본경제 실패 원인 중 하나다. 다른 이유로는 기업과 계열사 간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의 60%가 넘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계열관계가 불황의 장기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해 일본이 경제불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패 원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이 보이지 않고 내생적 산업구조의 재편보다는 부분적 재편이 주로 이루어져 구조조정의 한계를 보였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경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조적 파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혁욱 교수는 주장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고도성장기 일본이 잘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90년대 버블이 깨지면서 전보다 잘 되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최근 아베노믹스로 인해 변화가 보인다. 강연자가 볼 때 아베노믹스의 어떠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일본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한계적이다. 한계적인 시간만으로 기업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명목임금이 계속 감소되는 가운데 일자리도 생기지가 않는다. 외부에서 볼 때는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

질문: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 보인 강연이었는데 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만약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답변: 현재 일본 내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마이웨이를 걷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의 일본 내의 태도는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질문: 국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될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답변: 국채의 대부분은 기관 국채에 비해, 개인국채는 사실 얼마 안 된다. 일본사람들의 예금이 없어지는 과정으로 하는 기관국채인데, 일본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각을 하는 편이 아니다. 결국 은행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